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3월 16일(주일)
정기 제직회

4월 5일(토)
상반기 교사대학 개강
청년알파 초대만찬

4월 6일(주일)
일광절약제 종료

4월 8일(화)
성인알파 초대만찬

대 예수교장로회
양주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 주일(9일) 1-3부 예배는 대구
서문로교회를 담임목회 하시는 강학근
목사께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3. 한우리 평신도 QT 세미나가 3월15일(토)
10am-12pm 조이홀에서 있습니다.
강사: 김양재 목사 (우리들 교회)
4. [엄마랑 아가랑] 교사도우미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김경원 권사 021 380 888
5. 중보기도 신청 안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제목을
신청합니다.
 - 1) 사무실 맞은편에 준비되어 있는
중보기도함과 신청서를 이용하세요
(익명 신청 가능)
 - 2) 임광순 권사에게 문자로 신청
(02108354766)
6. 목상교재 '복있는 사람(3/4월호)'가 교회
사무실에 준비되어있습니다.

해외 단기선교팀 모집

- 대상: 한우리 전성도
- 일시: 7월 1일~7월 7일(7일간)
- 선교지: 바누아투 산토
- 미션: 부수 어린이 키즈 캠프
- 준비모임: 4월 6일~6월 29일, 매주 주일(13주)
- 문의: 조배영 021 0616 569
이정석 021 868 075

오클랜드 한인교회 협의회

- Oceania Think Ministry Seminar NZ
- 목회자세미나: 3.17(월)-18(화)
10am-5pm, 조이홀
 - 저녁집회: 3.16(주일)-18(화)
7:30pm-10:00pm, 한우리 교회 본당
 - 강사: 김양재 목사 (우리들 교회)

교육부서

- 비전 시니어 학부모 간담회:
3월 9일(주) 12:50-1:50pm 느헤미야 바울홀

세례/입교 및 유아세례 안내

세례/입교 및 유아세례가 4월 20일(주일)에 있습니다.

- 교육일정: 4월 5일, 12일, 19일(토)
1시~3시 조이홀
- 문답: 4월 19일(토) 3시 사랑부실
- 입교 신청자는 만14세 이상으로 성경일독을
미리 하시고, 세례 신청자는 만14세 이상으로
성경일독 또는 한우리교회 유튜브채널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총18강을 미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HanouriTV>)
- 문의: 안현수 목사 021 0863 7987

전도부

- 오늘 오후 3시, 타카푸나 스타벅스
건너편에서 거리전도를 시작합니다.

월	일	목장/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3	9	필라델피아 / 인도원달라
	16	히엘필리핀 / 베트남
	23	이리안자이뽀대나 / 양의문

교우동정

- 소천
김지현 (김원태) 성도가 지난 2월 28일
모친상을 당하였습니다.
조미영 (김형수) 성도가 지난 3일
부친상을 당하였습니다.
심정임 성도가 지난 5일 부친상을
당하였습니다.
유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둔 밤 쉬 되리니

1. 어둔 밤 쉬 되 리 니 네 직분지 켜 서
 2. 어둔 밤 쉬 되 리 니 네 직분지 켜 서
 3. 어둔 밤 쉬 되 리 니 네 직분지 켜 서

찬 이 슬 맺 힐 때 에 일 짝 일 어 나
 일 할 때 일 하 면 서 일 늘 지 말 아 라
 지 는 해 비 낀 별 에 힘 써 일 하 고

해 돌 는 아 침 부 터 힘 써 서 일 하 라
 낮 에 는 수 고 하 나 실 때 도 오 겠 네 도
 그 빛 이 다 하 여 서 어 들 게 되 어 도

일 할 수 없 는 밤 이 속 히 오 리 라
 일 할 수 없 는 밤 밤 이 속 히 오 리 라
 일 할 수 만 있 는 대 이 로 속 힘 써 일 하 라

목장소식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코람 데 오	1 로템나무 평양	김승기	21575899	온 유	37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2 예멘	형재홍	2102945114		38 인도네시아	채제섭	21424199
	3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39 미얀마	신동명	21719167
	4 멜번	지영철	2102750720		40 도우라안디옥	황용선	21399603
	5 드레스덴	여승재	0211030655		41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소 망	6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42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7 낮은 울타리	주성은	2108354513	43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8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44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9 느헤미야	이정석	21868075	45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10 선한사마리아인	권호남	212627967	46 감비아	김규영	220299838	
사 랑	11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47 베뢰아	이재용	210480543	
	12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274711446	48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13 바나바	김중국	21654688	49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14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50 히엘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15 야베스	김성민	212595119	51 베트남	김형석	21453862	
다 윳	16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211063498	52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21569056	
	17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211282102	53 양의문	조종면	275325423	
	18 수단로고스	김성국	272714894	54 말라위	여운영	225439531	
	19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5 북한개성	주윤태	2102847491	
	20 부르키나파소	권정호	21556934	56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빛	21 오사카	김택원	220806738	57 일본	손동욱	212043531	
	22 가나	이광일	212179303	58 러셀	안응진	211821185	
	23 가데스바네아	허진희	2102308976	59 노스쇼어	오현중	273206245	
	24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0 LA	정두련	211365151	
	25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61 오타라	이준영	21410884	
	26 서울, 빛의 마을	전은호	2041616256	62 이레	이의섭	210497628	
	27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63 산토	조기동	2102370987	
우 리	28 엘림	이명준	272970117	64 네팔 은혜	구재운	277844645	
	29 가테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65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30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66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31 월드 모로코	윤수경	272008546	67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21524896	
	32 Central 오클랜드	임상혁	21878868	68 아비가일	안경옥	2102913234	
	33 벤엘	신규식	21417756	69 모스크	노희영	274308322	
참 빛	34 섬나 호치민	나중엽	21386202	70 카이로스 발리	이경호	272341008	
	35 잇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71 에벤에셀 MercyShip	이민수	21810072	
	36 통가	송정순	2102562581	72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73 캄보디아바라크	최진순	211862748	
				74 그리스도의 향기 Lexell	심정임	2102386602	
교 구	초 원	교역자	3 교구	우 리 참빛 온유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소망 사랑	안현수	4 교구	무지개 임마누엘 약속	이성민		
2 교구	다윗 빛	최영두	5 교구	믿음 성결	김진영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1-7)

1. 이번주 설교 가운데 가장 도전받은 것은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어 보자.
2.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나누어 보자.
3.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에 대해 목장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정리하고 기도하자.

<p>아이티</p>	<p>“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갱단의 30% 어린이… 어린이 성폭력 1000% 급증</p>
<p>아이티 갱단의 30%가 어린이이며, 특히 어린이 대상 성폭력이 1000% 급증하는 등 아이티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에 따르면 현재 아이들이 아이티 갱단 구성원의 30-50%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12세에서 17세 사이로, 경찰병, 전달책, 최전선 병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어린이들이 무장 단체에 모집되는 사례가 70% 증가했다.</p> <p>아이티는 대통령 암살 이후 갱단이 장악한 지난 4년 동안, 5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피난민이 됐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최소 128명의 어린이가 갱단 간의 충돌로 목숨을 잃었으며, 2024년이 시작된 이후로 이미 5,600명 이상이 아이티의 갱단 폭력으로 사망했다. 이뿐 아니라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대상 성폭력이 무려 1000% 증가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p>	
<p>한국</p>	<p>“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자해·자살 시도자 45%가 ‘1020’… “한국교회, 다음세대 돌봄 나서야”</p>
<p>10대와 20대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 해 자살이나 자해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절반이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해 인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23년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한 사례는 4만 6,359건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2만 9,607건(63.9%)으로 남성(1만6,752건)보다 많았다.</p> <p>다음세대의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조성돈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대표는 “내면의 고통을 보듬고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서 “교회에서 생명 교육만 체계적으로 시행해도 다음세대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p>	
<p style="text-align: center;">기 도 문</p> <p>사랑하는 하나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아이티의 어린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한국]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누리며, 마음을 지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p>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p>	

